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32호
9월 23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개최

편향된 사상 국가인권위 개편돼야

로잔대회에 관한 이단대책협회의 기자회견 내용 설명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성순 복음교회 담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광주지방총회 김영호 목사의 기도, 직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목사는 사 38:5 말씀을 본문으로 '네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와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며, 특히 의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듣고 보았다'는 말



씀은 여호와께서 하스기야의 기도를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으로 목회자들의 참되고 진실한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김병목 목사 주재로 열려 실행위원회의 안건을 유인물로 받기로 결의하고 정책위

원장 조용목 목사의 한국교회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특별히 내년 9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로잔대회에 관하여 본 교단 이단사비대책위원장 정운기 목사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세계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내용을 소개하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전임총회장 진동윤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실행위원들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편향된 사상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을 즉각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저지를 위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중단 되도록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교회 내에서의 세심한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제72차 총회 임원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회자의 자세 강조

교단 정책위원회 모임 가져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9월 14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가 부흥된 후 오히려 세속적인 영향으로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건강한 목회를 위해 무리하지 않으며 적절한 운동으로 목회자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장수시대에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인규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7:13-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교회의 본질 회복과 믿음과 신앙이 일치하는 목회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회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목회자의 자세를 점검했다.

“로잔대회, 신사도운동 확산 계기 됐다”

한상협·세이협 “한국교회, 로잔대회 문제점 예의주시해야”

복음주의 선교운동으로 알려진 로잔대회가 신사도운동 계열 이단들이 성장하도록 큰 영향을 끼쳤다는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한상협, 협회장 진용식 목사)와 세계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세이협,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지난 8월 22일(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용식 대표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로잔대회가 신교신학적으로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분명했다”며 “특히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로잔대회는 신사도운동가들, 피터와그네, 신디제이콥스 등이 강사로 나섰다”고 전제했다. 진 대표회장은 “이때 신사도운동가들을 통해 소위 '지역의 영', 귀신이 땅에 붙어 있다는 무속적, 미신적, 비성경적 교리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소

개됐다”며 “루이스 부쉬 또한 10/40장에 지역 귀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영적도해를 선보여 일부 선교단체에 '땅딸기'라는 미신적이고 무속적 행위가 나타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진 대표회장은 “로잔대회의 신사도적 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단체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단성·참여금지·예의주시 등으로 규정한 '인터콥'”이라며 “한국 교회가 지적하고 있는 인터콥의 문제점 교리는, 영적도해, 배후에루살렘 지역의 영, 땅 밟기 등인데 모두 로잔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된 것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대표회장은 “제4차 로잔대회가 세계선교에 집중하다가 무속적·미신적·비성경적 신사도운동이 파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로잔대회 주최측은 제2차 로잔대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신사도운동과 관

련한 교리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4차대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목사는 “피터와그네가 1989년 제2차 로잔대회에 참석한 것은 신사도운동을 하기 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터와그네는 제3의 물결이란 저서를 통해 이미 제2차 로잔대회 전부터 신사도적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광주이단상담소장 강신우 목사는 “로잔대회는 신사도운동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절하하며 “특히 제2차 로잔대회의 5명의 강사가 신사도 운동가였는데 그들은 피터와그네, 신디제이콥스, 조지 오티스, 루이스부쉬 존 도우슨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목사는 “로잔대회는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상실하고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사회윤리운동의 경향을 띠고 있고 WCC, 로마가톨릭 등이 참석하며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로포징
인
말씀
은
시기
내

조용목 목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1~24)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단과 사이비 신자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야라고 생각하여 만일 예수님의 활약으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벗어 버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측근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출세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답을 그에게 몹시 충격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요동치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일로 잠시 중단되었던 여행길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지함과 열정을 귀하게 보셨으나 그를 허망한 지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 놓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껏 유대는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의 메시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메시야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체시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문받으시는 형장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처신한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또 세 살 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밝히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신 까닭은 예수님의 수난 예언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는 이론과 주장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철학과 신학과 교리는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메시야에 대한 말씀과 달리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달리 믿는 사람은 모두 사이비 신자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이용호 고신 전 총회장은 격려사에서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선을 지키는 것이다”며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사도운동 같은 곳에서 온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종환 목사(한상협 부회장), 광고는 이덕술 목사(세이협 사무총장)가 맡았다.

한상협과 세이협의 기자회견에 대해 제4차 로잔대회측은 “피터와그네가 신사도를 주장한 것은 2001년경부터이고 그 후부터 급진적 신비주의 성향을 보인 것이다”며 “1989년 제2차 로잔대회 때의 피터와그네는 신사도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그가 문제를 보인 이후에는 로잔운동의 강사로 세운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40장 영적 도해에 대해서도 “이슬람권, 힌두, 공산권 지역을 미전도 종족에 대해 선교적, 전략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루이스 부쉬는 신사도주의를 표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터콥측이 로잔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잔대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터콥이 로잔언약을 표명하기에 로잔이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로잔운동과 인터콥은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상실하고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사회윤리운동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로잔대회측은 “로잔대회의 문서들은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복음의 총체성을 견지한다”며 “이런 이유로 성경에 근거한 낙태반대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로잔대회 핵심인사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로잔 측은 “로잔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그동안 발표된 로잔언약, 마닐라선언, 케이프타운선언 등 공식 문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한상협과 세이협측은 공식문건이 아닌 참여 강사의 문제점을 확대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제4차 로잔대회(대회장 이재훈 목사)는 2024년 9월 22일~28일 인천 송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전세계 선교 사역자들과 리더들 3천여 명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하여 복음주의권 세계 최대의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잔대회측은 이번 한상협·세이협의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9월 중에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 제34-2차 실행위원회

통합문제는 여건 조성 후 추진하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9월 7일(목)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4-2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각각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신규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시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실사 보고를 하고, 한국기독교교집례회(총회장 이순자 목사) 교단 기입, 사단법인 성민원(대표 권대진 목사) 단체 가입을 실행위원회에서 승인한 후 임시총회를 통해 가임을 확정했다.

한기총·한교총 통합의 간에 대해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임원회 결의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 전에 드러진 예배에서는 공동



회장 유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가 기도한 후 전임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행 1: 6-8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드러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모종은 목사가 기도하고, 공동부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롬 8:28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통합의) 문을 다 열어놓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로 인해 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총회’ 다짐

예장보수합동, 제108회 총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합동)총회는 지난 9월 8일(금) 서울 상암동 총회 본부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총회’라는 주제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시대의 혼란을 말씀으로 회복하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이광용 목사를 총회장에 재추대하며, 다시 한 번 총회 안정 및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광용 총회장은 “물질적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영적빈곤은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 교단이 오늘날 과연 하나님이 부여한 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지란 큰 사명을 받은 교단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신학은 우리를 늘 깨어 있게 만든다. 깨어 있는 자가 세상을 살린다”라고 강조했다. 보수합동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고



개를 쳐들고 있는 WCC, 성경 분석설 등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 단호한 배격을 결의했다. 또한 엔데믹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의 회복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회 신하 목회자들의 연정교육을 시작으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새벽기도회 장려운동, 성경보기

장려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뿐 아니라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성경’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 및 국내외 선교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다 단체 및 교단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직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목회자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총회 59주년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18일(월) 평안교회에서 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양정섭 목사를 유임하는 한편 임원진을 개선했고 오직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삼일총무 임정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 부서기 민경구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히 11:8-1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가며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모세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수 신앙으로써 목자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기적역사를 이루어가며 능지 못함이 없는 살아 있는 믿음의 목자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영원한 영생길로 합치게 전

진하고 뜻을 같이 하여 총회의 발전과 모든 기관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통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부서기 이영숙 목사의 기도, 서기 전대식 목사의 총대보고에 이어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정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를 임시 서기로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전 회 의록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임되고, 민경구 목사, 양성은 목사가 유임되고, 부총회장 한성옥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각 임원진들이 유임되고 일부 개선했다.

세기총, 본부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드려

美 선교단체 ‘KIMNET’과 선교위한 업무협약도 맺어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세기총)는 지난 9월 8일(금) 본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세기총이 이전한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장경궁로16길 64 3층이다.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드린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김태성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가 ‘브호봇의 은혜를 누리자(창 26: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연합회관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는 과정에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기총은 그동안 많은 곳에 가서 한반도 자

유·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 왔다”며 “하나님이 세기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하와 인사의 시간에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인사를 전했다. 전 대표회장은 “취임한 이후에 처음에 회관을 구입하지는 생각을 했고, 그 뒤 중간과정으로 이 곳으로 오게 됐다”면서 “5년 안에 세기총 회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7천명 기도순교자 발대식 예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원로목회자 되자”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이사장 엄신형 목사,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는 지난 9월 6일(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1차 7천명 기도순교자 발대식 예배를 드렸다.

이날 발대예배에는 공동총재 이선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문세광 목사의 기도, 목사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총재 엄신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엄신형 목사는 약 4: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자이자 전능자, 해결자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신앙은 바뀌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목사는 이어 “우리 신앙인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다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 오늘 이 발대예배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헌신한 히스기야처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원로목회자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에는 참석자 모두가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등 다양한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 통성기도를 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목사교회 담임 양창부 목사의 교회소식, 명예회장 송용필 목사의 축도, 고분 임하영 목사의 중식기도로 순서를 마쳤다.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서 사랑의 쌀 나눠

살롱나비, 불우이웃과 함께 쌀 전달과 점심 배식봉사



살롱나비는 불우이웃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연 3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기로 하고 올 상반기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9일에 영등포 공영교회와 함께 영등포역 주변 어려운 이르신들께 사랑의 쌀 전달과 점심 배식 봉사를 하였으며, 이번 하반기 행사로 9월 13일(수)에 서울역 주변 쪽방촌을 방문하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소망찾는이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주변 쪽방촌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최철희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 대표)의 사회로 이은희 집사(살롱나비 구제이사, 덩기앤 트리 대표)의 기도, 육호기 목사(GMS 원로선교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날은 가을비가 내렸지만 주변 쪽방촌을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로 격려하고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에는 살롱나비가 후원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에 거주하는 김인숙 성도(독립운동가 후손인 조선족) 가정도 함께 심방하여 위로하고 기도로 격려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2023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생명의전화, 한국 자살 문제 심각성 캠페인 진행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전회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자살예방 캠페인 ‘2023 생명사랑 밤길걷기’를 지난 9월 9일(토)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진행했다.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36.6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22). 이에 한국생명의전화는 2006년 미국자살예방재단의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S’ 캠페인을 도입해 대한민국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18회째를 맞이했다.

2023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한국생명의전화와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 했으며, 자살

예방의 취지에 동감하고자 선한 기업들의 후원과 협찬이 이어져 더욱 풍성한 캠페인으로 구성되었다. 후원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티톡, KCRP,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경제인협회, 가희의료재단이 함께 했으며, 협찬사로는 메이블린뉴욕, 하쉬, 박카스, LG생활건강, 와우프레스, 린트, 히즈빈스, 자연드림, 러너블, 우알통, 커버넌트, 메가칩스, 퍼자락퍼지브러쉬, 이도인더스트리, 유한양행, 삼성더웰스, 도미노피자가 함께했다.

캠페인 당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진행된 현장 프로그램에는 4천여 명의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했으며, 다채로운 현장부스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한국생명전회 마스코트인 생명이나 악극 부스에서는 스트레스 자기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참가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이대로 좋은가?

예수교 대한하나님의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정운기 목사

로잔운동의 문제점과 위험성

“로잔운동은 말이 복음주의 선교운동이지 사실은 신복음주의의 타협적인 신앙과 신사도운동의 확산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한국로잔회의 의장: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가 2024년 9월 22~28일간 대한민국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잔대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 리더들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대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로잔대회를 연구한 결과 여러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글은 로잔대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 교단에 속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분별과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인 정운기 목사가 지난 9월 14일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1. 로잔운동이란?

로잔운동(the Lausanne movement)을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라 주장한다. 복음주의의 선교운동을 로잔운동이라 부르는 이유는 1974년 제1차 선교대회를 스위스 로잔에서 했기 때문이다.

1) 1차 로잔대회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다.

1974.7.16~25일까지 150여 국가의 135개 개신교단에서 2,700여 명이 참가했다. 1차 로잔대회를 주도한 인물은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톱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주의 신학 노선을 걸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신복음주의자이다. 1차 로잔대회의 마지막 날 존 스톱트에 의해 초안되어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이 발표되었다.

2) 2차 로잔대회가 1989년 필라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1989.7.10~20일까지 170여국의 3,0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 2차 로잔대회에는 신사도운동가로 알려진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1930~2016)와 몇 명의 신사도운동가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하였다.

3) 3차 로잔대회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2010.10.16~25일까지 198여국의 4,2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였으며, WEA(세계복음주의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3차

로잔대회에 대해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제3차 로잔대회는 1987개국 4천여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 신학교와 대학 등에서 공식 대표들이 참석한 외에도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WCC 등에서도 1천여 명이 초청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치러졌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김브라이언, 2010, "로잔 경향 비탕으로 WEA·WCC 총회 준비해야", 기독교일보, 2010년 11월 11일)

2. 로잔운동의 문제점

1) 신복음주의의 문제점

로잔대회를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1차 로잔대회를 주도한 빌리 그레이엄은 신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자이다. 복음주의는 무엇이고, 신복음주의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들을 '복음주의'라고 불렀다. 복음을 믿는 개신교회들을 복음주의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거나 왜곡시켜 성례나 신자의 공로적 선행을 강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20세기 초 이단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이 개신교회들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 자유주의에 대해 전무적인 입장을 취한 자들을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본주의도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엽 이후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 가운데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입장을 가진 자들이 등장했으며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입장을 가진 자들을 신복음주의자라고 불렀다.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풀러(Fuller)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해럴드 오렐가이었다. 1948년 그는 풀러 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이단들에 대하여도 포용적이며, 선교에 있어 개인 규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입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자신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잔운동에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임을 알아야 한다.

제1차 로잔대회를 주도했던 빌리 그레이엄은 신복음주의자이며, 그는 점차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톨릭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고, 자신의 집회에 가톨릭 주교들과 신자들을 초대했다(이안 머리, 2000, 분열된 복음주의, p.109).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복음적인 기독교라고 했다.

그러므로 현대에 복음주의라고 말하면 신복음주의를 복음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성경적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본 교단이 타협주의 신앙을 가진 '신복음주의'자에 의해 주도되었고, 1차 로잔대회에서 작성된 로잔언약에 기초해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에 참석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은 본 교단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제2차 로잔대회에서는 신사도 운동가인 피터 와그너를 위시해 몇 명의 신사도운동가들이 강사로 강의를 했다. 신사도운동(피터 와그너)은 장로교 고신과 합신과 기장에서 참여금지, 교류금지로 결의가 되었고, 기하성(여의도)에서는 예의주시로 결의한 바가 있다. 신사도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

과 직통계시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스스로 자신을 사도라고 했고, 사도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피터 와그너는 풀러 신학교 교회성장학 교수였는데 그의 신학이 변질된 것은 빈야드 운동의 선구자였던 존 윌버와 교제를 가지면서이다. 빈야드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으로 장로교 통합과 고신과 합동 등에서 도입금지, 참여금지, 사이버 등으로 결의된 바 있다.

피터 와그너를 위시한 신사도 운동가들이 2차 로잔대회 강사로 강의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단 사상은 '지역의 영들(territorial spirits)' 사상이다. 피터 와그너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이 시작된 것은 흔히 2차 로잔회의(Lausanne II)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세계 복음화 회의에서였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LCWE)는 전 세계에서 4,500명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1989년에 마닐라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적어도 다섯 명의 연사들이 다른 참석자들 대부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그 주제는 '지역의 영들(territorial spirits)'이었다. 나도 그 다섯 명의 연사들 중의 하나였다."(피터 와그너, 2008, 신사도적 교회론의 변화, 김영우 역, 쉼나무 출판사, p.129)

'지역의 영들'은 이해하기 쉽게 '영토 귀신들'로 말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어느 지역(영토)을 장악하는 귀신들이 있고, 선교를 위해서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땅 밟기' 기도이다.

이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로잔언약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사역하는 초교파적인 복음주의 선교단체'라고 단체의 성격을 선언하고 있다. 인터넷은 로잔운동에서 주장된 영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땅 밟기를 하느라 불교사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땅 밟기를 통해 영토 귀신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땅 밟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성을 둘은 일은 영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땅 밟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성경 어디에 베드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영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땅 밟기를 한 예가 있는가? 이러한 잘못된 무식 신앙과 같은 것이 로잔대회를 통해 피터 와그너 같은 유명한 인사에 의해서 강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에 의해 확산이 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라는 로잔대회가 신사도운동과 인터넷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세계적 확산에 판을 깔아준 적이 된 것이다.

3. 로잔대회 위험성

제3차 로잔대회에 로마 가톨릭과 교류하는 WEA와 공동 주최하고, 로마 가톨릭과 WCC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다는 점은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가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우리 교단이 그동안 WCC와 종교다원주의의 위험성을 얼마나 많이 외쳤었는가? 교회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에서의 변질이 더 위험함을 알아야 한다. 낙타가 머리만 천막에 넣는 것을 용인했다가는 결국엔 천막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한국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본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앙의 변질과 배교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단 만큼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복음주의를 추

구하는 교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결어)

2023년 8월 2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는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회(세이협),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한산협) 두 단체의 이름으로 '로잔운동의 정체와 본체 제기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위 기자회견에서 세이협 진용식 대표회장은 한국 로잔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남겼다.

"제4차 로잔대회를 바르게 하려면 제2차 로잔대회에서 무속적·미신적·비성경적 신사도운동의 교리를 발표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특히 당시 발표한 신사도 운동 교리들을 공식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철저없이 로잔대회를 진행한다면 제4차 로잔대회는 또다시 어떤 본체적 교리의 통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제4차 로잔대회가 진행되기 전, 제2차 로잔대회에서 발표한 미신적 교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철회 없이 진행되는 4차 로잔대회에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참석을 거부해 주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앞의 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로잔운동은 말이 복음주의 선교운동이지 사실은 신복음주의의 타협적인 신앙과 신사도운동의 확산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으로의 변질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한 위험한 대회임을 인지하고 한국교회와 순결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약은 어떤 모양이라도 바리새"(삼전 5:22)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 제4차 로잔대회가 과거의 잘못된 신앙 노선을 철회하고 성경적 복음주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본 교단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대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견이다.

*본 글은 세이협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의 저서인 '인터넷과 로잔운동의 이단성'(비엔비기획, 2022)를 참고하고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군선교위원회 제2 작전사령부 위문

위문품과 신앙서적 전달 철통경계 장병위해 기도 다짐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웅 목사)는 지난 9월 5일(화) 제2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음으로 함께 방문한 목회자들은 모두 완벽한 지휘체계 아래 철통방야에 힘쓰는 장병들의 모습에 든든한 마음을 갖고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과 간부들을 위문했다.

사령부에 도착한 총회장 김병목 목사, 위문품과 신앙서적 전달 철통경계 장병위해 기도 다짐

이어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준비해간 위문품을 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조용목 목사의 신앙서적과 김상용 목사의 설교집을 전달했다.

제2 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특히 교단 군선교위원

장 박순웅 목사가 섬세하게 장병들이 꼭 필요한 것을 나눠줌으로 이에 감동을 받고 크게 감사드리다고 했다.

또한 제2 작전사령부와 예하 사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총회장 김병목 목사에게 깊이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단과 교단산하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서도 열심을 다해 장병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굳은 결의의 말씀을 전했다.

사령관의 배움을 받고 행사를 모두 마친 일행은 무열대회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각자의 목장으로 돌아갔다.

한국교회 방향성 제시...한국교회에 큰 희망

‘다음세대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포럼

미래목회포럼 제19-4차 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동규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지난 지난 9월 7일(목) 오전 7시 프레스센터 19층 마하홀에서 다음세대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19-4차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정세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의 교육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미래목회포럼 실행위원장이 이동규 목사의 인도로 열린 이날 포럼은 대표 이동규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동규 목사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다음세대 회복을 위한 여러 고민을 펼칠 책임이 있다"며 "교회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정속 학교 교육에 기여했던 바도 컸다. 다시한번 교회가 이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대표 고명진 목사의 대표기도, 정귀석 목사(삼양주 주평강교회)의 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다음세대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귀석 목사는 "1986년 9월 3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시작하면서 가졌던 비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이 기쁨 되는 일꾼으로 세우기는 예수공

동체'였다. 지역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 가정은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자. 이 일을 하는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자. 그래서 가족과 가문이 신앙명분기를 이루자. 이런 꿈을 품고 달려온 지가 어느덧 꼭 28년째 되었다. 지금은 장년과 교회학교 학생이 약 4000명을 이루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다.

정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세대의 교육은 결국 주 1회의 예배와 공과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정과 학교를 또 단순히 배워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다음세대의 교육을 고민하는 자녀들은 '학령기' 자녀이다. 학교교육 및 입시에 가정문화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평강교회는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신앙교육'과 '대안학교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지난 10년간 열심히 달려왔다. 교회학교 사역에서 가정과 소통을 강조하고 성경 암송, 가정공과 활동 등 가정 미션을 부모님과 소통하며 독려하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주중 부모님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자녀들이 건강 습관을 갖도록 동역하고 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델이 되

는 것을 강조한다. 가정예배 문화를 세우고, 이야기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잠자리들 때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하도록 격려했다"고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또 가정의 건강한 신앙문화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온가족 Q&T운동, 온가족 가정예배, 영유아학교, 어린이학교, 청소년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십자가기도회, 포리미스 주중 교육 등 많은 연구들 통해 가정이 함께 거머쥔는 신앙교육을 완성했으며 여기에 대안학교인 '주빌리학교'를 통해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을 통해 더욱 탄탄한 신앙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목사는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큰 통령이 필요하다. 대안학교같은 교육기관을 세워서 자녀들의 주중 교육을 통해 가정과 함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주중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 공간을 활용해 추진할 수도 있으며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문화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이신대 목사는 총평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에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안학교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유독 절의응답이 많았는데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방향을 맞춰나간다면 한국교회에 큰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9월 월례회 및 목회자기도회 갖고 뜨겁게 기도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9월 12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에루살렘교회(담임 노사라 목사)에서 월례회 및 9월 목회 자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 과 지방회를 위해 뜨거워 심령을 가지고 기 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날 1부 예배는 에루살렘교회 노승우 부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김정 순 목사(은혜의복음교회)의 사회, 지방회 부 회장 배영래 목사(순복음엘림교회)의 대표 기도,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순복음새샘물교 회)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은혜의강물교회)는 롬 3:23-24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은혜 받은 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특별히 폭염으로 지친 회원들 위에 큰 위 로와 평안과 주의 능력이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이어 지방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함께 공유, 점검하는 월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명절을 앞두고 회장 김영호 목사의 고무

마 한 박스, 직전회장 조은주 목사의 합초소 금 선물세트, 최애자 장로의 포도 한 박스를 회원들 모두에게 섬겨준으로 풍성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이어 순복음에루살렘교회에서 제공한 전 심식사를 함께하며 회원들간의 풍성한 교제 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9월 4일(월) 오전 11시,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 치한 세움교회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 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 사(살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주성 목사 (민들레교회)의 대표기도, 김병주 목사(열방 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세 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마 18:14-20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이 땅의 지배를 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은 주의 뜻을 더 크 게도, 더 작게도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야 한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때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통로를 따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교회는 깨어서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교 회와 종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준비된 만큼 역사하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역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환무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고영권 목사(한세교 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

는 10월 지방회 수임회에 대해 논의한 후 무 더운 여름철 목회사역을 위해 수고한 지방회 원들에게 세움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송정 바닷가로 자리를 옮겨 교제를 나누었 다. 맨발로 백사장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방회원들은 10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각자 지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는(회장 허만운 목사) 지 난 9월 11일(월) 안동에 있는 성신은혜교회



(담임 김재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 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항구 목 사(주산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임지방 회장 도사현 목사(동해인순복음교회)의 대

표 기도, 김재두 목사(성신은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말 2:5-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 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고, 주의 종 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두렵고 떨 립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영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 전임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 동성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2부 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가을에 있을 아우회예에 대해 의견 을 나누었다.

그 후 안동의 스키 뷔페식당에서 점심식 사를 하며 사람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 역지로 향했다.

다윗의 모범적인 신앙자세를 본받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9월 12일(화) 증평순복음교회(담임 김윤용 목 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 회)의 사회로 시작해 윤광진 목사(늘푸른교

회)의 대표기도, 김윤용 목사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김 목사는 삼상 22:1-5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모범적인 신앙자세를 본받자'라고 권 면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들에 게 신뢰를 잃어버린 사울왕과는 다르게 다윗 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는 데, 오늘 우리도 내 육신의 이득보다 하나님



의 뜻을 깨달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 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씀선포 후에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 고 신병설 목사(청주주사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이목 순복음교회)의 인도로 각 부서 보고를 유인 물대로 받은 후에, 지방회 연합 체육대회를 11월 6일 갖기로 결정하고, 또한 지방회 교역 자와 사모 세미나는 12월 4일에 이목순복음 교회에서, 내년에 있을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는 내년 4-5월 중에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끝으로 간 이식 수술을 한 김정수 목사 (부강순복음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해 합심 하여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식당 으로 이동해 애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월례회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노우석 목사)는 지난 9월 11일(월) 오전 11시 순복음포도원교회(담 임 오일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순구 목 사의 사회로 시작해 회계 한정숙 목사의 대 표기도, 서기 김찬애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 회장 노우석 목사의 겔 16:6 말씀을 본문으 로 한 '살아만 있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 로 이어졌다.

이어 재무 김영희 목사의 헌금기도, 지 방회장 노우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



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 리하고, 포도원순복음교회 오일선 목사가 지

방회원들과 사모들에게 한정식을 섬김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 아갔다.

영혼 구하는 일에 앞장설 것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9월 12일(화) 비전교회(담임 김진현 목사)에 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서성영 목사 의 찬양인도에 이어 총무 김진현 목사의 사 회로 시작되어 정세창 목사(은혜교회)의 대



표기도, 조정훈 목사(하늘소망교회)의 성경 봉독, 김진현 목사와 사모중앙단의 특송 후 에 전임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영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사 15:14-20 말씀을 본문으로 '별화교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별레 셋은 유다 민족을 괴롭힌 민족으로 삼손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 여인 블레셋 당나 여인을 택하여 결혼식을 올렸는데 장

인은 이 여인을 블레셋의 친구들에게 시집 을 보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나귀턱뼈 를 주어 블레셋 천명을 죽였다. 그 후 삼손은 심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티르레 물이 나 오게 하여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소생하였고 그곳을 연화교래라 하였다"라며 "오늘 우리 에게 라밧레하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 승리 후에는 교만함이나 공허감이나 허탈감이 찾아온다. 이러한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님을 찾아 부르짖으면 반드시 연화교래의 응답을 받게 됨을 믿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 에서 열심을 다 해 기도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 김진현 목사의 나라와 교단 과 지방회를 위한 중보기도 후에 배길선 목사(선석샘물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방회 장 김효신 목사(전양교회)의 축도로 예배 를 마쳤다.

이어 9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지 방회에서 준비한 오찬 후에 인근 카페에서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반성정적 로마 가톨릭교회와 WCC’ 배격해야

정상운교수 주제특강 인천지방회 월례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8월 22일(화) 진주순복음교회에서 8월 월례회 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 (예수이름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창모 목 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정상운 교수(한국기독교학원원장)의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정상운 교수는 '포도원을 하는 작 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반성정적 인 로마 가톨릭교회와 WCC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정 교수는 "WCC는 설립 취지와 달리 회 기가 거듭되면서 성경적 한계를 벗어나 자 유로운 행보를 하고 있고, 신앙 고백적 일치 와 연합보다 외형적·기구적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며 로마 가톨릭과의 연대뿐 아니라 타종교와의 제휴도 불사하고 있다"고 말했 다. 또한 "복음의 경계선을 넘어 종교다원주 의와 종교융합주의 요소를 지향하는 WCC의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행보를 강 건너 불구 경 하듯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고 에스더 목사(순복음에빛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부회장 이나건 목사(진 주순복음교회)의 광고, 전임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지방회장 김진원 목사의 인도로 2부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나건 목사(진 주순복음교회)의 섬김으로 맛있는 오찬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 아갔다.

여성목회자 및 사모를 위한 ‘여사모’ 행사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9월 11일(월) 영종도 신너바위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목회자 및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지방회 임원들이 준비한 간식을 나누고, 교단총무 정진균 목사(학원순 복음교회)의 기도 후, 하루 일정을 소개하고 찬조하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영종도 신너바위 해수욕장에 도착한 여 성목회자와 사모회원들은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의 힘을 누리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무지개물화와 해물갈국 수, 해물파전 등 풍성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다음 장소인 실미도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총무 김성규 목사(순복음생명나무 교회)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레크리에이 션을 진행했다.

그후 해변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꽃을 피

우며 이를 통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후 청리로 이동해 패치 볼백과 생고기 김치찌개를 식식으로 '여사모' 행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정기영 목사 ‘질병이 오는 이유’ 설교, 치유 전도집회에서 말씀증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 부산신학교 학장)는 지난 9월 12일(화)~15일(금)까지 열린 로니 마카비 목사 초청 한국 치유 전도집회에 공동대회장

으로 오산리기도원에서 지난 9월 12일(화) 저녁 집회 강사로 설교와 치유사역을 감당했다.

이날 정牧사는 고전 11:27~32 말씀을 본론으로 ‘질병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 가야함”을 강조했다. 말씀 선포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시간에는 집단 치유와 개인 치유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놀린 것에서 해방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충만의 현상이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화순복음교회(담임 안선자 목사)에서 9월 월례회로 모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심권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회계 김화자 목사의 대표기도, 제일감리교회 이안자 장로의 색소폰 연주로 은혜로운 특별찬양이 이어졌다.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는 담임 6:11~16 말씀을 본론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한 것들은 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좇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리”고 선포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강조했다.

전임지방회장 엄기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교단과 지방회 각 교회와 사역’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월례회로 이어졌다.

장소를 옮겨 대화순복음교회(담임 안선

자 목사)에서 설기는 맛있는 오찬을 나눈 후, 대청호 오백리 길의 ‘평상정원’과 ‘부소담악’ 오래길을 걸으며, 유난히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날에 지친 심신을 달래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고,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한소망교회)가 설기는 저녁식사를 끝으로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전북대 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 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A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1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 1. 시작시간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등록, 2시 40분에 찬양 시작
- 2. 마침시간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 3.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 4. 일 정 : (일정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일(월)	17일(화)	18일(수)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00		신앙유산탐방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찬양
10:00~11:00			폐회예배 말씀:김병목총회장목사님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등록	회복의산책 (용인농촌테마파크)	
15:00~17:30	O.T. 지방회소개, Ice Breaking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1:00	개회예배 말씀:정책위원장님	간증과 콘서트 (CCM가수 박종호장로님)	

5. 광 고 :

- 1) 속소에 침구가 비치되어 있는데, 개인침구를 사용하실 분은 가져오셔도 됩니다.
- 2) 16일(월) 역에서 전원성전까지 shuttle 안내
 - ① 광명 KTX역 - 오후 1시, “서편”방향으로 나오셔서 2번출구(Gate)앞 횡단보도를 2번 건너셔서 잠시 기다리시다가 사모회차 탑승
 - ② 수원역 - 오후 1시 30분, 수원역 4번출구 나오셔서 조금 더 올라오시면 “노보텔 엠베서더”와 버스정류장에서 사모회차 탑승
- * 역에서 사모회차량을 이용하실 사모님께서는 꼭 미리 총무에게 통보하여주셔서 차량운행봉사자와 연락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사모님들 도착시간이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역안에서 편히 기다리시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위의 장소로 늦지 않게 이동해주세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으므로 사모님들께서 모두 모이시면 차량봉사자가 사모님들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 전화 : 010-2610-3816 (총무 김세희사모), 010-3596-8757 (서기 나명숙사모)

생명의 말씀



황용연 목사
· 경남지방회 전임회장
·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의 사역 중에서 가장 화려한 승리의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투에 나선 기드온이 불과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군사로 무려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시키는 기적적인 전쟁 기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승리의 모습뿐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숫자적으로 우세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와 그 자격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1. 겸손한 자가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겸손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디안과 그 동맹국의 군사들의 수는 135,000명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수는 3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4배 이상이나 되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군사의 숫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 아니라.” (삿 7:2)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도 승리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요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서 찾지 않고 인간인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승리합니다. 지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곳에는 결코 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준비된 자가 승리 합니다.

이제 곧 종선이 치러지는데 나라살림도 준비된 자가 일을 맡아야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일만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6-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있을 때 이들의 물 먹는 태도를 보고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허로 물을 핥는 자이며,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요, 세 번째는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로 구분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 300명만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개 같이 물을 핥는 자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 태세를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6절)는 주위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군인 정신이 부절한 자이며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

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왕하 4:3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한 생도의 집에만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얼마나 가난하고 빚을 지었는지 이 가정의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빚을 못 갚는다고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하 4:3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리고 가져온 그릇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붓는 대로 병이 차고 넘칩니다. 언제까지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까지.

우리 교회, 가정, 나 자신, 우리 모두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드온은 비밀스럽게 햇불 작전(19-23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용사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눈 것도 보다 더 비밀을 잘 유지하고 기습 공격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작전이었습니 다. 그리고 준비 시킨 기드온 군대의 주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햇불입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고 진격하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저히 전쟁 무기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드온은 본문 17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삿 7:17)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햇불 작전은 한 두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전과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동 정

수잔 솔티 초청 통일한국포럼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영희 교수)이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를 초청해 지난 9월 17일(주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에스더기도센터에서 통일한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스더기도운동 ‘심년클럽’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심년클럽은 북을 통일을 위한 10년 헌신자 모임이다.

한동대 포항·경북과 도약할 것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전공 및 학부간의 경계, 지역과 학교간의 경계, 국내와 국외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대학혁신 모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한동대 ‘글로벌 대학 30’ 사업 계획은 지난 9월 14일(목)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제9회 직장선교 비전포럼



직장선교사회분회원(대표회장 박상수 장로는 9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충무성결교회 본당에서 ‘제9회 직장선교 비전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직장선교와 사회문화’이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 등이 공동 주최한다.

장양례 환우, 예수병원에 기부



장양례 씨가 지난 9월 13일(수)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홍식)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예수병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장양례 환우는 “64년 전 예수병원이 베푼 선행에 대해 보답하고자 찾아왔다. 수술비가 없을 때 ‘이 집사’로 기억하는 의사가 의술을 베풀었다”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흔들리는 공영방송, 언제까지 사장 교체로 해결되나?

그 동안 말이 많았던 KBS의 사장이 이사회를 통하여 지난 12일 해임되었다. KBS 사장은 법정 임기가 3년인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KBS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은 이번이 해임된 김의철 사장이 처음이 아니다. 그 전의 정영주, 김현영, 고대영 사장 등과 함께 연속적으로 해임되는 기록을 남겼다.

혹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예외 없이 KBS 사장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사장이 해임되는 것인가? 이번이 KBS 사장의 해임 이유는, 무능?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배수거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

향된 인사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아닌가? KBS는 엄연히 공영방송이고, 국가 대표 재단 방송으로, 당연히 누구보다도 공정성에서 확고함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민이나 방송 시청자들의 권익보다는 특정한 정치 세력과 언론 권력에 지배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다.

KBS의 노조에서도 지난 2년간의 김 사장에 대하여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무능하다는데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KBS 구

성원들도 지난 6월 1,000명이 실명으로 연명한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면 KBS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나 정권이 바뀔수록 수뇌부가 해임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KBS 사장을 교체하는 문제도 진보 정권일 때는, 자기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장을 해임했으나, 보수 정권에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편향성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되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전 정권하에서 자기들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들을 편중하여 세우고, 그들이 여론을 선동하고, 가짜뉴스의 확산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 대선 전 가짜뉴스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에 KBS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KBS 쪽의 라디오 등에서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KBS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KBS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KBS는 ‘노영방송’이란 말을 들은 지가 꽤 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또 권력지향적인, 혹은 권력복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 권력에서 잡아 흔들리고 하여도, 스스로 공영방송이란 자부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런 노력은 수뇌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안다. 만약 KBS 구성원들이 그런 노력을 한데도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면 국민들이 막아줄 것이다.

사장이 바뀐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곧바로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권들도 자기를 입맛에 맞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KBS 직원들도 편향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노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결코 언론 권력의 탈취함에 취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지키려는 각고(刻苦)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 선발 최선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7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모임을 갖고 면밀한 자격검토와 검증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빌 4: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감당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특별히 목사임직을 위해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여나 부적격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목사고시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서류를 일부 보완토록 했다.

한편 2023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9월 21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 예배실



“세계 속에 한국문학을 세계화한다”

세계기독교문학가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및 창립총회

세계기독교문학가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및 창립총회가 지난 9월 5일(화) 오전 11시 신길교회(회장 김갑성 목사)에서 열려 초대 이사장 및 대표회장에게 박영률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세계 속의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한국문학을 세계화하는데 미움과 뜻을 모으고 문학의 꿈을 성취하도록 문학의 인재를 발굴하며 육성하는데 진력하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근기 목사의 사회로 발기인 서성철 목사의 대표기도, 발기인 이윤덕 장로의 성경봉독, 이해진 사모의 특별찬양, 신길교회 담임 김갑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삼상 16장 6-13 말씀을 본문으

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디윗은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품이 고왔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왕으로 크게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처럼 한국문학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 한국문학계에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세계가 놀랄 정도의 문학의 꽃을 피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발기인 김봉근 박사의 추사 및 격려사, 발기인 김순찬 장로의 광고, 발기인 김민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두 순서를 마쳤다.

기념사진촬영 후 곧바로 이어진 창립총회에서는 이미 추진중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서둘러 완료하기로 하고 초대 이사장과 초대 대표에게 박영률 목사를 선임했다.

박영률 목사는 취임 일성으로 “세계 속의 한국 크리스천으로서 한국문학을 세계화하는데 평생 문학계에 몸담으며 쏟은 모든 열정을 모아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목적 사업으로 회원의 문학적 역량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진교, 선교사업, 한국문학 창달을 위한 국내외 문학기행 및 도서 출판사업, 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과 다음세대 문학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기념행사

보라매공원에서 장기기증 주인공들 모여 활성화 염원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9월 9일(토)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본부가 주관한 기념행사 생명나눔 페스타 ‘나누고 더하는 사랑’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故 최철재 씨의 아내 이광임 씨(59세)는 소감을 전하며 “한 해 뇌사 장기기증인이 52명에 불과했다. 23년의 세월이 흘러 한 해 기증인이 450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 여전히 남편이 그리지만, 누군가 남편의 생명을 통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를 얻는다.”라며, “남편의 장기기증에 지극심을 느껴 2010년 자신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했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인 기념 공간이 건립된 보라매공원에서 지난 9월 9일 개최된 장기기증의 날 기념 행사에는 이광임 씨와 같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90여 명과 생존 시에 타인을 위해 신장을 기증한 기증인 50여 명, 그리고 장기이식인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16쌍에게 ‘생명의 별’기증인의 사진이 담긴 별 모양의 크리스탈 패’가 전달됐다. 3년 전 떠난 아들의 사

진이 새겨진 생명의 별을 받은 이석우 씨(남, 85세)는 “가을이 다가오면 포근한 이불을 선물하며 늘 부모의 건강을 먼저 챙기던 아들이 사무치게 그리다.”라며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아들이 아들 못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신장 하나를 기증한 생존 장기기증인 중 기증 30주년을 맞이한 21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1993년 일면식도 없는 한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 이태조 목사(82세, 남)는 기념패를 전달받으며 “모두 지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사랑을 나눈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씨는 2005년에 간의 일부까지 타인을 위해 기증하며 국내 몇 안 되는 신장·간 기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념패 전달이 끝난 후에는 생명나눔 패레이드가 진행되어 참석자 전원이 보라매공원 내 산책로 3km를 걸으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피켓 행진을 펼쳤다. 이어 생존 시 장기기증의 역사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의 사진 전시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와 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정보와 참여방법 등을 알렸다.



서울역 ‘참좋은친구들’ 노숙인들께 ‘도시락’

“참좋은친구들은 한국교회의 사역 자산이다”

한국교회 노숙인 사역의 상징, 서울역 ‘참좋은친구들’(이사장 신석출 장로)이 사역을 재개했다.

9월 7일(목) 오후 6시경 서울역 노숙인들에 도시락을 나누자 오랜만에 물러든 노숙형태들로 인해 준비한 도시락 100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려 15년을 한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루 세끼를 나누던 ‘참좋은친구들’의 부재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다. 지난 4월 3일, 부동산 문제로 무료 급식을 중단한 지 무려 153일 만에 재개된 것.

그러나 여전히 참좋은친구들 건물의 입구는 철벽으

로 굳게 막혀 있었고, 식사할 공간은 물론, 미평한 테이블이나 의자도 없는 상태다.

‘참좋은친구들’의 위기는 코로나가 끝난 올해 시작됐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의 철거를 계획하며, 참좋은친구들에 퇴거를 통보했고, 신석출 장로와 노숙인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수없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신 장로와 노숙인들은 거리집회를 시작했다. 한수막을 내걸고, 피켓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제주도 성령충만 성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니를 보내소서.

주의 종들이여,

오늘의 심장 심자가 삼으세.

회개의 심자가, 회생의 심자가.

마음의 지성전이여 주의 몸이시여,

그대 몸은 순결하여라.

심령의 불뿔이 속에 주의 임재 가득하다.

오늘 우리 모두

다메시 회심 아픔의 압박감 되어

눈물의 고백 바다를 이루리.

아, 복음이여

그리스도의 피 값이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1호차 한 가득 찬 버스

전도의 구령으로 열기를 가득 채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총재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전도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의 물결로.

전도 동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청주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

한평생 주님나라 위하여

목회자로써 부흥사로서 선교사로서

현신의 노고를 다하시다.

한국강도 주의종들을 깨우치는 호세길 목사.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선교지라.

주님 위로 하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안위 하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한국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급변성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세계평화감사축제’

세기충, 러-우 전쟁 중단 및 한반도 평화 기원 감사축제 11월 25일 연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충)는 오는 11월 25일(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러-우 전쟁 중단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11월 25일까지 시행하는 ‘러-우 전쟁 크리스마스 정전’을 위한 정오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러-우 전쟁 중단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 준비위원회(위원장 강성종 장로)는 지난 9월 8일(금) 오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호소하고 국가와 종교를 초월하는 DMZ 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세부 일정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회 상임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세기충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광철 목사(세기충 공동회장)의 기도, 대회장 전기현 장로(세기충 대표회장)의 인사 후 임동진 목사(국민배우, 한국기독교문화



예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평화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동사무총장 장현일 목사(세기충 공동회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가 회견문을 낭독한 뒤 준비위원장 강성종 장로(세기충 공동회장, 신한대학교 총장)가 대회의 행사 목적 및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1~3부로 진행되며, 1부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추수감사예배, 2부는 세계평화와

크리스마스 휴전을 염원하는 선언식 및 퍼포먼스, 마지막 3부에서는 세계평화 콘서트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DMZ 세계평화추수감사축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및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914년 당시의 크리스마스 정전을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희망고문과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한 신천지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신천지 신도는 계속해서 감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강의 실력으로 인 맞은 것을 확인하겠다고 공지했다. 만 5년 전인 2017년에는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지른 시험을 통해 인 맞은지를 평가하겠다고 했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지령이 떨어졌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원받은 신도를 뜻하는 의미

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144,000명의 신도가 세워지면 신천지의 시대가 열리고 신천지 신도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2015년 자체 추산 약 16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되자 인침을 받은 144,000명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교리를 변경했다.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강의를 통한 인 맞음 확인 시험은 이만희 사후를 대비하는 방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신천지 신도는 계속해서 감소했다”며 “동시에 고령인 이만희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어 신천지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총애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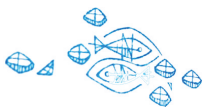
010-2217-4489 010-8732-4489



만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시간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니까? 누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보다 더 친근하게, 그리고 더 잘 알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아무도 나에게 시간에 대해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시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정작 “시간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딱히 대답할 말이 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하비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시간을 저축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시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란 어쩌면 시간에 예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신비스러

운 바다 속에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 졌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나간 어제의 마무리와 내일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갈 수 없으며 다가올 시간은 예약이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란 항상 어제의 시간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에는 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워즈워드의 “아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 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그 이익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수고도 애씀도 주를 사랑함도 오늘에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골 4:18)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주님의 솜씨

동그란

수박에 물이 한가득

더운 여름 목 축이라 넣어 두셨네.

아하!! 아하!!

창조주 하나님 코팅 솜씨는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웁구나.

상처 받기 쉬운 마음...인생들 마음...

겉만 보는 인생들은 미련한 존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상처 투성이.

이천 년 전 흘리신 주의 보혈로

내 마음 코팅시켜 승리케 하시네.

내 마음은 바로 바로 하나님의 것.

코팅된 마음은 상처와 무관.

그 어떤 죄악들도 넘볼 수 없어

보혈의 코팅 앞에 그 힘을 잃고

때르루 뚝...때그루 뚝...

떨어진다네.

수박 안에 물이 저장되고

박의해로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코팅솜씨를 발견하며 보혈로 덮어

우리를 지키시는 큰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입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입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출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독양일립.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로5가 8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